

의 '노동' 으로 들어가기 : 대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하나. 사각지대 노동, 하나하나 들어나기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기사화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 현실들이다. 대형마트를 배경으로 하는 염정화 주연의 영화 <카트>나 대기업 콜센터 계약직 상담사 모습을 그린 윤은혜 주연의 <미래의 선택>에서 보여 지는 감정노동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공효진과 이선균이 나온 <파스타>에서는 여성차별과 부당해고가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TV나 영화 속이 아닌 밖의 현실이다.

“홍대 청소 노동자 해고, 콜센터 텔레마케터 및 다산120 상담사 폭언, 항공사 승무원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직 폭행, 아파트 경비원 폭행 및 분신, 패션 및 헤어숍 인턴 및 수습사원 착취와 해고,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 교통사고, 민들레 영토나 토즈 같은 공간 대여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매우 다양한 특수고용형태” 등의 노동문제들이 우리 주위를 덮고 있다.

그간 노동문제에서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한 영역이나 주변화 되었던 취약 집단의 문제가 우리 중심(core)으로 들어 온 것이다. 과거에 아무렇지 않았던 혹은 문제가 없었던 현실이 아니라,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왜 그럴까. 1987년 이전엔 국가의 억압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착취하지 말라는 요구와 투쟁”이었고, 조직된 이해당사자만의 노사관계 영역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본의 이윤추구 속에서 “이젠 착취해도 좋으니 고용이라도 해 달라”는 현실이 되었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풍경 둘. 노동의 두 가지 모습, 드러난 노동과 숨겨진 노동

10대와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낮은 시급(5,580원)을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당사자 즉,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속에 일의 성격과 무관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다.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결정해 놓고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활동이라는 기존 노동조직의 교섭과 투쟁으로 넘어가면 거리를 둔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곧 ‘언론에 비추어진 현대자동차’로 각인되어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형태를 진부(old)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유니온(union)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덜 거부감을 느낀다. 개별적 노동문제에는 매우 진보적이나, 집단적 노동문제엔 매우 보수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일반 국민들도 다르지 않다. <미생>의 장그레 차별과 고용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상임금, 장시간노동 문제 해결 주체인 민주노총이나 정규직 노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당원은 다른가.

2000년대 중반까지 노동문제는 제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나 불법파견 혹은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전후 시기의 KTX 승무원, 이랜드, 기륭전자, 재능학습지 등의 비정규직 투쟁들이 사회적 이슈였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희망버스(한진중공업)나 아름다운재단 노란봉투(쌍용자동차), 사례와 같은 민간부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투쟁, 철도 민영화와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공공부문 투쟁 과정에서 노동문제가 사회적 관심과 자지를 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사실이다.

사실 삼성전자서비스, 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다산120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원하청 문제’ 즉, ‘갑-을 관계’ 속에서 출현된 다층적인 고용구조는 쉽게 포착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자본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은폐된 혹은 숨겨진 고용관계가 당사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절의 힘들게 투쟁했던 비정규직 투쟁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이 그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닌 방증이다.

셋. 프레임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알리기

문제는 “진보정당이 노동계급 중심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대중’과 함께 할 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중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은 중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함께 찾아야 한다. 중앙 집중적인 노동 의제는 기존 노동조직과 함께

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 의제들은 일터 현장에서 끓아졌던 것들이 들어난 것이다. 결국 진보정당의 노동문제는 지역(communitiy)과 일상(life) 속에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저임금 문제는 미흡하지만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으로 그 첫 발을 내 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과 당원들의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 했고,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들의 도움도 있었다. 때문에 이제는 공공부문의 좋은 사례를 민간에 확산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실현 방식은 진보정당과 노동조직만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운동적 활동이면 좋겠다. 다수의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정책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다.

예를 들면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자 설치와 명절 영업 금지는 우리나라 서비스 여성 비정규직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활동이다. 콜센터나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폭언폭행과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피할 권리, 벗어 날 권리, 회피할 권리’ 요구는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산업안전 차원의 작업중지권 실현이다.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안전경비, 보건의료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 법제도화는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직무 재설계 활동이다.

넷. 대안 사회, 노동과 같이 걷는 운동

끝으로 지역차원의 당원 모임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2015년 상반기 당원과 지인들이 함께 번개 모임으로 영화를 한번 보자. 평일 늦은 시간 동네 멀티플렉스 극장을 하나 찾자. 바로 인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만난다. 일찍 도착한 당원들이 커피 한잔을 주문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하루, 일주일 근무시간, 시급과 근로계약 체결 등을 물어보자. 그리고 당원들이 도착하면 영화 예매 티켓을 받으러 가고, 또 한번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조건을 물어본다.

한 달 후 모습(상상 imagine). 우리나라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과 커피전문점의 노동문제가 며칠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된다. 당원들의 활동으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노동친화적 의원들에게 법제도적 개선 요구와 내용들이 하루 종일 SNS와 언론에 기사화되고, 그 이후 당원들은 변화된 노동의 삶을 목도 한다. 대중들은 이런 진보정당의 모습과 활동들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사실들을 하나 둘씩 확인하면서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